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민주-국민 '갈등'

민주 "조례 따라 과반 선임" vs 국민 "위원장 내주고 과반"

임시회 본회의 10분만에 정회... 첫 추경안 심의 등 차질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는 등 의사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3일 오전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은방 의장의 개의 선포와 김용집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회의록 서명의 원 선출만 마친 채 본회의는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전을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두 당의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별로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안전 처리를 무산했다.

큰 틀에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 조례 34조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

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차가 커 최종안은 유동적이다. 국민의당은 당초 4대 4 동수로 구성한 뒤 나머지 1명은 의장이 추천한다는 안을 내세웠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에 17명으로 예결위를 꾸리자는 이례적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불가피하게 본회의 개최 후 해당 안전 상정 뒤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제안 설명 등도 없이 정회가 선언되면서 본회의장에 배석했던 광

주시와 시교육청 고위 공직자들과 실무공무원들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임시회 속개를 기다리며 마냥 기다려야만 했고, 의회민주주의를 보기 위해 온 방청객들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양당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장 첫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당초 본예산보다 4662억원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3일부터 상임위 심의, 둘째주에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260회 임시회 폐회일인 7월14일 이전에 추경안 통과 여부를 확정해야할 상황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임시회 파행도 우려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추경 심의가 발동의 불인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동구, 중심사지구 상권 활성화 길 열렸다

광주 동구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4억 원)'에 선정된 데 이어 행정부 '2017년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무등동동(無等洞動) 일일팔채(1.187m) 거리조성 사업'이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골목특수성과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쇠퇴한 골목상권을 주민주도 하에 되살리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소가 선정됐으며, 광주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체를 꾸려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중심사지구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이벤트 ▲무등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 ▲생태환경, 문화예술 도시발전과 관련된 연계사업 강화와 다양한 홍보 프로젝션을 펼칠 계획이다.

"건강관리는 서구 건강체력센터에서"

광주 서구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건강체력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앙동 서구국민체육센터 내에 위치한 건강체력센터에서는 20세 이상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건강체력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한 생활의 기본인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신체능력과 건강행태, 질병이환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평가하여 건강체력점수로 관리된다.

남구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광주 남구는 3일 "사업장을 운영 중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공평 과세 및 재원 확충을 위해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공장이나 병원, 금융기관, 대형 음식점, 목욕탕, 일반 사업장 등 사용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60원이다. 미신고 및 미납부,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조건에 따라 가산세가 10~20%까지 붙게 된다.

북구, 공공데이터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개시

광주 북구가 생활밀착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주민과 행정이 모바일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gdata.bukgu.gwangju.kr>)에서는 차트, 그래프 및 지도 등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공공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으며, 순쉬운 검색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산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8일 개최

안정된 일자리, 사람 중심 기업 운영,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한데 모여 잔치를 벌인다. 광산구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오는 8일 첨단다목적체육관에서 '2017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프로그램 중 사회적경제 박람회 가 우선 눈에 띈다. 일자리 창출과 임원 환아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광산구가 추진하는 '병원이동보호사'가 활동하는 엄미산길 협동조합 등 20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부스촌이다.

이곳에서는 각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공예품, 쿠키, 재활용 버튼, 프리저보드 플라워도 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전래놀이도 가족과 즐길 수 있다.

임행택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이업종 엑스포트클럽' 결성 지원

광주·전남지방중기청(청장 김진형)은 지역의 이업종 기업들이 수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이업종엑스포트클럽'을 결성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클럽은 제조업, 건강식품, 디자인, 금융사출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30개사 중소기업으로 이업종 기업들간에 협업을 통해 제품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로서 광주·전남의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는 이업종 엑스포트클럽과 함께 월드클래스·글로벌강소기업 중심의 히든챔피언 클럽(31개사), 수출 초보·유망기업 중심의 글로벌리더스클럽(32개사) 등 3개 클럽으로 운영된다.

'이업종 엑스포트클럽' 회장을 맡은 (주)동일이트의 이춘식 회장은 "내수기업의 수출화를 위해 여러 분야의 우수한 기업이 모인 만큼, 클럽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사간 네트워크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고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간에 협업을 통해 나온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면서 "클럽 회원사간에 협력을 통한 수출 성공기업이 나오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시장정보제공, 해외마케팅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윤장현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2017 광주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에서 핸드 프린팅과 함께 남길 사회적기업 응원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경찰, 2017년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전남지방경찰청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여 불법 개·변조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 활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전남청은 총포소지허가 대상자들의 빠진 점검을 위해 일제점검 통지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지허가된 모든 총기류로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마취총, 타정총 등 총 9.872정도로 점검 방법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지참물(총기 등 점검

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휴대하고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 노약자·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총기소지자의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장기 미사용 총기에 대하여 자진 폐기 유도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기류는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되고 행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점검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환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전차선로 급전장애 예방 캠페인 전개

코레일 광주본부는 3일 강릉에 의해 선로변 이물질(폐비닐 등)이 날려 전차선로 접촉으로 발생하는 급전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본부 전차선로 직원들이 선로변 인근 마을 및 호남고속2단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전차선로 이물질 걸림 위험성에 대한 설명, 선로변 폐비닐 합동수거 작업 등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코레일에서 제작한 '폐비닐 방치는 열차사고를 유발합니다.'라는 문구의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부착 활동도 병행 시행하였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